

■ 토론회 개관

이번 제주지방토론회는 언론중재제도를 홍보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언론중재제도의 운용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기사작성시 혹은 뉴스보도시 인격권 보호를 위해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낙진 위원(제주중재부 중재위원,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이 『언론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2007년도 언론조정신청 사건 중 주요 중앙 일간지의 보도행태에서의 차이점, 취재원 익명·실명처리 여부, 취재원 인용유형과 표현형태 등의 분석적 방법을 통해 뉴스구조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어 윤현주 중재부장(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등 9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